

# 강인규 시장 “한전공대 유치, 11만 시민 간절한 염원 성과”

### 원활한 설립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할 것 학생 1,000명 규모 세계 최고 에너지 연구중심대학 나주한전공대설립위원회 ‘한전공대 유치 환영’ 강시장 “한전공대 설립, 철저히 꼼꼼히 준비해야”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유치 확정된 ‘한전공대’와 관련, “2022년 3월 개교까지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한전공대 유치는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 이후, 손에 꼽을 만한 가장 큰 성과”라면서, “이제는 성취감에서 벗어나, 우리 시에 산적해있는 숙제를 꼼꼼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전담조직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리 시가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춰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 ◆학생 1,000명 규모 세계 최고 연구중심대학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전체 학생 1,000여명 규모로 설립된다. 캠퍼스 부지 40만㎡를 비롯해, 연구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80㎡ 등 총 12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 ◆나주한전공대설립위원회 ‘한전공대 유치 환영’

나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전 공대 입지로 혁신도시가 선정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전 공대 입지가 선정된 만큼 설립 목적과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설립 용역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위원회는 “한전 공대 입지가 나주 혁신도시로 선정된 것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 ◆한전공대 유치 시민 환영식

나주시는 지난 1월 31일 한전공과대학(케프코텍 Kepco tech) 나주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를 <화합과 상상, 새로운 에너지 Kepco tech>이라는 주제로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환영식은 나주시립예술단의 식전공연, 축하동영상 상영, 유치

경과보고, 유치선언 등 본 행사와 송대관·김정민·유현상·설화수 등 인기가수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불꽃쇼가 펼쳐졌다.

#### ◆강시장 “11만 시민 간절한 염원 성과”

강인규 시장은 “한전공대 유치 성과는 함께 노심조사하며,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준 11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하고 당당한 성과”라며, “혁신도시 시즌2 시작을 알리는 한전공대가 세계 일류 에너지 연구 중심대학으로 목표연도인 2022년까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시·도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정리-이민행 대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오찬 모임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맨 처음 인사를 나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청와대 오찬 모임에 문재인 대통령 옆의 앞자리에 배치되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옆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다.

###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

## 나주시, 한전공대 나주 유치 확정

1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 분회의에서 한전공대 입지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와 송림제 인근’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한전공대가 우리 나주시에 입지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건설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하고 당당한 성과를 여러분께 전제드릴 수 있어서 한없이 기쁩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한전공대가 나주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심조사해 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 나주인이 보여준 힘과 저력은 자랑스런 나주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상상이라는 큰 틀에서 한전공대 입지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에 임해주신 이용섭 광주시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통해 우리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에 내실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었고,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 나주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11만 시민과 함께 한전공대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연구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지난 2005년 11월,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날 빛가람혁신도시는 시·도민 여러분의 상상과 협력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한전공대가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닌, 광주와 전남이 다



시 한 번 상상발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3월 개교까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대학설립에 따른 이주민 지원 대책과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과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국가성장 동력은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와 에너지 스마트 국가 산단 등 에너지 산업의 산학연 혁신주체를 집적화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천년,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 나주를 만드는 담대한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해년에도 뜻 깊고 기쁜 소식들을 계속 전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변화와 혁신, 재도약을 통해 “위대하고 당당한 나주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나주시장 강인규 올림

